

스스로 된 종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 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도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들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 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값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5:12~18]

요즈음 텔레비전에 군대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재미있게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사실에 가까울 만큼 군대 이야기를 잘 보여 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잘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제대할 때 다 된 고참에게는 신참들 놀려 먹는 낙이 제일 큰 낙이죠. 처음 가면 많이 묻는 질문이 “야, 며칠 남았어?” 제대할 때까지 며칠 남았느냐 그 말입니다. 처음 간 신병들도 그 날짜는 대충 알아요. 대충 “8백 며칠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나 같으면 죽는다, 죽어!”

졸병이 할 말이 뭐 있나요? 이제 막 군에 갔는데... 그래서 멍하게 가만히 있으면 또 한 마디 들 습니다. “야, 물어봐. 줘!” 무얼 물어 보라는 겁니까? 이 때 눈치껏 잘해야 합니다. “예?” 이라고 있으면 찍히는 거예요. “나, 얼마 남았는지 물어 보란 말이야!” “아, 예. 며칠이나 남으셨어요?” “열흘 밖에 안 남았어!” 뭐 이런 거죠. 고참들의 낙이 이런 겁니다. 한 열흘 남았으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금방 갈 것 같죠? 그 열흘이나 한 1주일이 정말 겁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루한지 모르는데 무슨 착오가 있어서 1주일 연기됐다고 통보가 오면 미쳐요, 미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돼서 ‘한 달 연기’ 이렇게 되면? 이걸 죽습니다. 제대 말엽에 그렇게 연기되면 진짜 못 견뎌요. 그런데 한 달 연기되면 죽는다 했는데 ‘6개월 연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예삿일이 아니에요. 들은 이야기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6개월 정도 연기 된 적이 있어요. 김신조 일당이 쳐들어와서 서울 어딘가에 난리 난 적이 있잖아요? 그 때 비상 걸려서 제대가 6개월 정도 연기돼 버렸어요. 1주일, 한 열흘 이라고 손가락 꼽고 있다가 6개월 연기되면? 아, 못 견뎌요.

그런데 제대 날짜가 다가 왔는데 “부대 일이 좀 많이 있고 하니깐 자원해서 한 달쯤이나 좀 더 있다가 갈사람?” 찾으면 100의 100 안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안 합니다. 제가 그 비슷한 경우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제대시켜 주세요. 나가서 밖에 방 하나 얻어 주면 밖에 있다가 일만 거들어 주러 들어올게요.” 이럴 수는 혹 있는데 이것도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겨우 2년 3년하고 나오는 군대도 하루 더 있는 것 이렇게 힘들거늘, 하물며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6년씩 했어요. 그런데 6년 끝에 드디어 “종살이 그만하고 나가도 좋다.” 그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돈까지 넉넉하게 주어서 “나가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없는 종이 “주인님, 저 안 나갈래요. 이 집에서 종살이 할 테니까 그냥 살게 해 주세요.” 이런 종이 있을까요? 아마 ‘머리가 많이 모자라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예가 나와요.

이런 제도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이상한 법도 다 만들었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다시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경우를 허용하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찬찬히 봐 갑시다. 12절,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히브리 사람들이 동족을 종으로 이렇게 사고파는 법이 일반적인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수는 있어요.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갚을 방법이 없으면 결국은 몸으로 때우고 살아나는 수밖에 없죠. 있는 것 다 털어도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팔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를 허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만일 여섯 해 동안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주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때워서 갚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어서 팔려 온 거예요. 그런데도 6년 동안 너를 섬겼거든 내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값을 후하게 쳐서!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종으로 팔려갔거나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렇게 풀어 주는 법을 보셨냐구요? 어떤 나라에도 이런 법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권 인간의 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법입니다. 사람은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종노릇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원히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6년 동안 종살이 하고 그냥 내보내면 못살아요. 지금같이 먹을 것이 많고 일자리가 많은 시대가 아닌 그 옛날에 종살이 6년 하고 빈손으로 내 보내면 못 살아요. 그래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샅을 주어서 내 보내라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히는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손해예요. 옛날 종은 전부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멸절한 재산을 그냥 포기하러니까 이권 인간의 법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아요. 더군다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법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여하튼 돈 주고 종을 사 왔어요. 그냥 보내는 것도 아까운데 6년 만에 내 보내라. 그것도 품삯을 많이 줘서 내 보내라. 이러면 상당한 손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기뻐하시고 이럴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했던 그 일을 자기 백성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엄마를 닮았거나 아빠를 닮았거나 그런 것 눈에 보이죠? 아버지의 참 안 좋은 버릇을 자식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짜증나세요? 반가우세요? 좋은 것 닮으면 참 좋는데 자기의 안 좋은 것을 닮았어요. 짜증나세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전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여보, 재 좀 머라케요/꾸중해/.” “왜?” 해서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저희 애비를 어떻게 저렇게 닮았노? 그것도 좋은 것 아닌 나쁜 버릇을요. 저는 몸이 오싹해 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했던 버릇을 어떻게 30년이 지나 저 놈이 그대로 하고 있는지 무섭더라고요. 제가 집 사람에게 그랬어요. “난 재 못 머라케.” 날 닮아서 그런 걸. 내가 어떻게 꾸중해요? 꾸중 못해요! 입도 뻥긋 안했어요. 그런데 입지는 않더라고요. 요즈음 시골벽적인 친자 확인은 안 해 봐도 확실한 거예요.

잘 됐든 못 됐든 내가 한 짓을 아이가 그대로 하고 있으면 느낌이 이상해져요. 그런데 내가 잘 했던 것을 따라 한다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일이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쳐다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수밖에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던 너희를 불러내서, 이렇게 값을 주고 불러내서 너희를 이 땅에 오도록 해서 내 백성으로 삼았느니라.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종을 붙들고 있지 말고 풀어 주라는 거예요. 속량, 값을 주고 풀어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서는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네 형제에게 가난한 형제, 불우한 종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종 되었던 너희를 내가 해방시켜서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종처럼 부려 먹으려고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만드셔서 부려 먹으려고 만드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을 한 번 둘러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을 물질의 한 종류로 보는 공산주의나 인간을 동물의 한 종류로 보고 있는 진화론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인간을 부리는 이런 현상을 허용하는 셈입니다. 나빠요! 인간을 소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의 소비재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자본주의나 아니면 거대한 기계의 조그마한 부품처럼 생각하는 현상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희생시키는 전제 군주제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죠. 혹시 중국의 만리장성 보셨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야, 걸어서 올라가기도 이렇게 힘들고 가파른 이 높은 산에 이 성벽을 쌓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을 오랜 세월동안 동원해서 이 험한 산에 그 길고 긴 성을 쌓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을까?” 를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집트에는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을 위하여 거대한 건축물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한 생명, 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거든요. 이것이 얼마만큼 큰 은혜일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그 크기가 짐작이 안가는 큰 은혜입니다. 생각해 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겨우 한 가지 힌트를 얻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 이야기를 해도 자기 수준을 절대로 안 넘어요. 가령 어린 아이가 “엄마, 돈 있어?” 할 때는 과자 한 봉지 값이면 돼요. 천 원짜리 한 장이면 됩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몰라도 중학생이 “엄마, 돈 있어?” 이럴 때는 많아 봐야 겨우 몇 십 만원 되겠죠. 대학생이 “엄마, 돈 좀 있어?” 하고 물을 때는 얼마 있어야 있다고 합니까? 저도 돈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깐 넘어 갑시다. “야, 시집 가야지.” 하는데 “엄마, 돈 있어?” 이렇게 나오면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얼마만한 금액을 말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을 만지거나 다루는 수준하고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참 큰 돈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많은 액수를 부른 게 얼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액수?

어떤 분이 임금님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다 싶어서 임금님이 탕감을 해 줬어요. 이 신하가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빚을 못 갚는다고 감옥에 쳐 넣어 버렸어요. 임금님이 그 말을 전해 듣고 이 신하를 다시 불러요. “나는 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했는데 너,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었다며? 너 이리로 와 봐.” 죽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런 것은 반드시 돈 계산 하셔야 돼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간의 일당으로 보시면 돼요. 요즈음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후하게 칩시다. 일당 100,000원이라고 칩시다. 100일이니까 그러면 10,000,000만원이에요.

천만원이 작은 돈 아니죠? 그러니까 감옥에 넣을 만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에게 빚진 일만 달란트는 얼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1년 총 국가수입이 800달란트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일만 달란트는 국가 전체 수입의 10배가 넘는 액수예요. 자, 그래도 감 안 잡히시죠? 1달란트가 금으로 34kg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비유 중에 주인이 멀리 가시면서 종들에게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3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줬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돈으로 계산을 해 봤는데 1달란트가 대충 계산해도 4억~5억이 나와요. 지금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계산했던 것보다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으니 1달란트가 현 시세로 10억도 좋고 20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10,000달란트면 어떻게 돼요? 능력 있거든 계산해보세요. 10억에 10,000을 곱하면 얼마죠? 전 계산이 안 나와요. 10억, 100억, 1000억, 10,000억? 아니 1조, 10조까지 가나요? 10조면 얼마쯤 돼요? 저는 몰라요. 어느 대통령님 돈을 엄청 굶어 먹고 요사이 생고생 하고 있는데 그 때 돈이 약 5,000억쯤 됐다고 그러는데... 10,000달란트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천만 원 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감옥에 쳐 놓았다니,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가장 흥미로운 게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얼마나 돈을 만지셨기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0,000달란트를 이야기 하시느냐 말이지요. 돈 이야기를 해도 자기 수준대로 노는 법이에요. 옛날에 어느 애가 목사님께 세배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세벳돈으로 10,000원을 줬어요. 이 돈을 딱 집어 던지면서 “이것 말고 돈 줘!” 무얼 달라는 이야기예요?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왜요? 그 때 고래밥이 500원이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500원 짜리 동전이 돈이지 10,000원 짜리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 아이의 수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돈을 얼마나 만지셨기에 10,000달란트 이야기를 하셨을까? 전 예수님의 그 수준을 조금은 이해 할 것 같아요. 왜요?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분의 몸값! 그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도저히 없겠지만 말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이게 아닐까요? 그러면 1만 달란트 하지 말고 10만 달란트하고 100만 달란트 하고 그러시지? 1만 달란트만 해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의 그 표현만을 가지고 생각해도 너무너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우리 머리가 상상할 수없는 엄청난 은혜!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이런 은혜를 받은 너희는 작은 것을 베푸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던 종을 6년 만에 내 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작은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법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 “주인님, 안 나가겠어요. 그냥 이 집에서 종살이 할 테니까 그냥 살게 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2년 3년 근대 생활하는 것도 몸서리가 나는데 어떻게 6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던 사람이 안 나가겠대요? 이런 경우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의 경우만 허용을 했어요. 16절 보실까요,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어떤 이유로 안 간대요? 주인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사랑함을 인하여, 사랑함으로’ 비록 종으로 6년을 살았지만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져서 6년을 있었으면 이 사랑을 떠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해서 안 떠나겠다고 하거든 그 종은 받아 주라는 거예요. 그 종은 세월 지나서 해방시킬 종이 아니고 영원히 종으로 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밖에 나가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도 볼 수 있고, 이 집에 와서 종으로 살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여기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그 주인을 사랑해서 안 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악하거나 싫으면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인과 종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종 관계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는 주인이 종을 사람으로 안 여겼어요. 간혹 어떤 기록에 보면 노예는 말하는 동물로 여겼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이 종을 죽이든 살리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종이라도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냐? 그것은 오늘 현대적인 우리의 시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예요. 그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고 외친 노비가 있었어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 굉장한 선각자입니다. 오늘날 인권이 발달된 시대에서 보면 굉장한 선각자이지만 결국은 불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도대체 천륜을 무시한 고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 옛날의 종과 주인의 일반적인 관계죠. 그런데 성경은 주인과 종이 그런 관계가 아니다. 주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인도 진정으로 종을 사랑한다면 종으로 두라. 그렇지 않으면 내어 보내라는 거죠.

여러분, 종이 영원히 종살이를 하는 경우를 딱 이 경우만 인정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영원히 종으로 두어도 좋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죠? 자녀와 부모, 좋습시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또 있나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어마어마합니다. 아이가 종이를 가지고 이것저것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 이런 관계가 다 있어요. 또 대체 어느 것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가 맞아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 맞아요? 다 맞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아내라고도 하죠. 부부관계로도 표현하고 부자지간으로도 표현하고, 주종관계로도 표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맞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다 맞을 수 있어요? 설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 해도 이것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사랑과 존경으로 맺어져 있으면 주인과 종이나, 부자지간이나 부부관계나 다 똑 같은 겁니다. 주인이 낯겠어요? 종이 낯겠어요? 부부지간도 사랑으로 맺어진 주종관계입니다. 주인하실래요? 종 하실래요? 대답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주인 하는 게 낯지 않겠나, 그 말씀이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 집에 가서서 머리를 할부로 팔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무슨 일을 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그랬는데 이 머리가 무슨 일을 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몸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다는 것을... 이것이 머리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대요.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흔히 말하면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순종하는 것이 쉽겠어요, 목숨 다 바쳐 사랑하는 것이 쉽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성경 봐라, 성경!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하지 않았냐!”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이 아니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소리예요. 성경은 머리가 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예요. 머리 하실래요? 몸 하실래요? 천국에서 높아지려는 자마다 낮아져야 한다고 그랬죠? 종노릇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진 주종관계이므로 성도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어디라도 계급이 존재해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계급처럼 되었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급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인데 이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어버리면 종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종노릇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해 보신 분은 알아요.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주인이 있을 때만 그래요.

부부간에 서로 종노릇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모르시는 분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네요. 서로 왕노릇 하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깨져요. 그럴 바에는 한 사람이 왕노릇 하고 다른 한 사람이 종노릇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들께서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세월이 많이 지나 이 종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못 살겠다, 갈라서자.” 이렇게 되죠. 이게 황혼이혼이잖아요. 서로 왕노릇 하면 그렇게 되는데 서로 종노릇 하면? 그냥 상상만 해 보세요. 이해하기 제일 좋은 것은 엄마가 자식한테 종노릇 하는 경우일 겁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얘기입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가서 마루에 툇 걸터앉으면 엄마가 세숫대야 가져와서 씻겨주고 닦아주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야단쳤는지 모릅니다. 경상도 말로 “니(너), 지금 얼라가/어린아가/니, 지금 몇 살이고?” 그런데 얘 답변이 이래요. “나 지금 효도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아들 발 씻기는 것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엄마 원하는 대로 대 주는 게 효도래요. “엄마, 됐다. 내가 할 거야.” 하면 서운해 한대요. 이해는 돼요. 이게 다 큰 자식에게 엄마가 종노릇 하는 것 아니에요? 불행일까요? 행복일까요? 그 엄마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맛있어요?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것이 맛있어요?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맛있어요? 거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그죠?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맛있지, 어떻게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예뻐요? 그게 종노릇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서 아낌없이 주고 싶고, 주는데 내가 좋아 어쩔 줄 몰라! 자식한테 이런 관계가 된 엄마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원래 부부간에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해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식에게까지 그렇게 되

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이었다 해도 사랑으로 이렇게 맺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종 관계는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종은 안 보내고 영원히 종으로 두어도 좋다. 내가 종살이 하던 놈들을 불러내서 여기에 풀어 주었는데 이 놈이 너한테 가서 종살이 한단 말이지? 그것 안 돼! 그러면서 이런 종살이는 괜찮다고 말씀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피조물로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이런 사랑관계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거든 17절에,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 같이 할지니라' 종이 되겠다고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귀 불에 대고 뚫으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보이세요? 좀 잔인하게 보였는데 어느 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데리고 있던 중학교 여학생들이 자기 손으로 귀를 뚫더라고요. 물론 후유증으로 귀가 Ting Ting 부어 며칠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귀고리 하나 달려고 자기 손으로 뚫는 놈도 있던데요? 그것을 보고서는 별거 아니네. 미장원 가면 바로 뚫어 준다면서요? 귓볼은 그런 용도로 쓰라고 잘 뚫리게 만들어 냈나 봐요.

옛날에 종을 사가지고 가면 낙인을 찍었어요. 보통 이런 곳에 인두처럼 불로 지져서 낙인을 찍었어요. 종의 표시로 낙인을 찍던 것에 비하면 귀를 뚫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즈음 귀에 달고 다니는 분들 보면 "저에게는 영원한 주인이 계십니다." 그런 표로 달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좋게 봐요. 지금도 귀 안 뚫고 안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반성해야 되겠죠? 우리 집사람도 하나 달아보겠다고 해서 뚫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것도 쉽게 뚫리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봐요. 하필이면 종의 표시를 그렇게 내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크게 위험하지도 않아요. 피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도 그냥 해 보는데 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고 피조물인데도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전혀 없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고 선택하는 모습으로 살게 해 주셨는데 이 권리를 잘못 사용해서 형제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실 것 같아요.

마무리 하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는데요. 북한 땅을 탈출한 사람이 선교사들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다시 북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왜 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보니 이 복음을 죽어가는 내 동포 내 형제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북한 땅으로 가겠다고 돌아갔습니다. 선교사에게 남긴 말이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납시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자기 몸으로 체험을 하고 나니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형제, 내 동포를 위해서 종노릇 하러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노릇 하려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 정도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 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라도 이 정도 종노릇, 아니 제일 먼저 부부 사이에, 아니 가정에서라도 사랑 때문에 종노릇 하는 모습을 이루시고 교회도 아름답게 이루시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주변사회가 참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